

묘제(墓制)와 목관(木棺)을 통해 본 익산 쌍릉(益山 雙陵)의 의미

김낙중
전북대학교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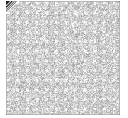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익산 쌍릉의 묘제 및 목관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쌍릉은 묘제와 장제 뿐만 아니라 옥장신구와 같은 부장유물 그리고 익산과 무왕의 관계를 통해서도 무왕과 그 비의 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에 백제 왕릉, 즉 무왕릉이 조영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비가 아니라 익산을 기반으로 왕이 된 무왕이 익산을 중요시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신라와의 관계에서 익산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익산 경영의 요인이 되었다. 익산에 도성의 경관을 이루는 주요시설을 세운 것은 천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의 준비와 일부 실행을 보여준다. 다만 귀족과 사서인(士庶人)의 거주구역 등 도시로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무왕 사후에도 익산의 중요성은 의자왕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것은 무왕 재위 후반기에 창건된 제석사 및 미륵사와 같은 대사찰이 백제 멸망 때까지 계속 운영된 점이나 사찰로 전용되었지만 왕궁 일원이 여전히 존속된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승의식이 무왕과 그 비의 능을 익산지역에 조성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백제(百濟), 익산(益山), 쌍릉(雙陵), 묘제(墓制), 목관(木棺), 무왕(武王)

투고일자 : 2014. 09. 30 | 심사일자 : 2014. 10. 15 | 게재확정일자 : 2014. 10. 23



머리말

익산은 사비기 백제의 또 하나의 도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대사회에서 도성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왕릉의 존재일 텐데, 쌍릉은 그를 증명한다. 다만 발굴조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연구할 자료도 부족하여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익산지역에서 왕궁, 사찰, 산성 등 주요한 시설이 발굴조사되면서 쌍릉의 의미를 새롭게 밝힐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익산 쌍릉의 의미를 묘제, 목관, 익산을 키워드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한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어느 정도 있으나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를 위해 쌍릉의 묘제, 목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제, 그리고 그러한 고분이 익산이라는 지역에 축조된 배경을 유기적으로 살펴본다. 쌍릉의 역사적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한다.

묘제와 목관

1. 쌍릉의 구조와 부장품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왕피라고 불리는 곳의 낮은 구릉 상에 쌍릉이라 불리는 2기의 원형 봉토분이 180여 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고분이 입지한 낮은 구릉의 약 900m 북편에는 용화산에서 이어져온 산줄기의 말단 봉우리가 위치한다.

이러한 입지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일반적인 사비기 백제 고분군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서정석 2006). 약간 먼

곳의 산지를 배경으로 하여 그 전면 평지나 야트막한 미고지에 능원이 형성되었고 봉분이 우뚝하게 솟아 있는 이러한 입지의 단독 능원제는 수와 당초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김용성 2014). 물론 중국에서 능원제 자체는 수당대 이전에 등장하며, 한반도에서도 고구려의 경우 평양 천도 후 왕릉급 대형분들이 교외에 단독으로 분산 배치되는 사례가 있으므로(朴淳發 2012) 쌍릉에서 보이는 단독 능원제를 수와 당초의 능원과만 연결시키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쌍릉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에 나타나는데, 후조선(後朝鮮) 무강왕(武康王)과 그 비의 능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무강왕을) 말통대왕(末通大王) 혹은 어릴 때 서동이라 불린 백제 무왕이라 하기도 한다⁰¹고 하였다. 쌍릉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익산군 고적조에 비로소 그 위치와 함께 나타난다.⁰²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초기에는 쌍릉이 왕릉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말통대왕은 무왕이고 무강도 『삼국유사』를 보면⁰³ 무왕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쌍릉은 비록 마한의 왕릉으로 알려져 왔지만 고분의 주인공이 속전(俗傳)되는 몇 안 되는 사례로서 익산과 무왕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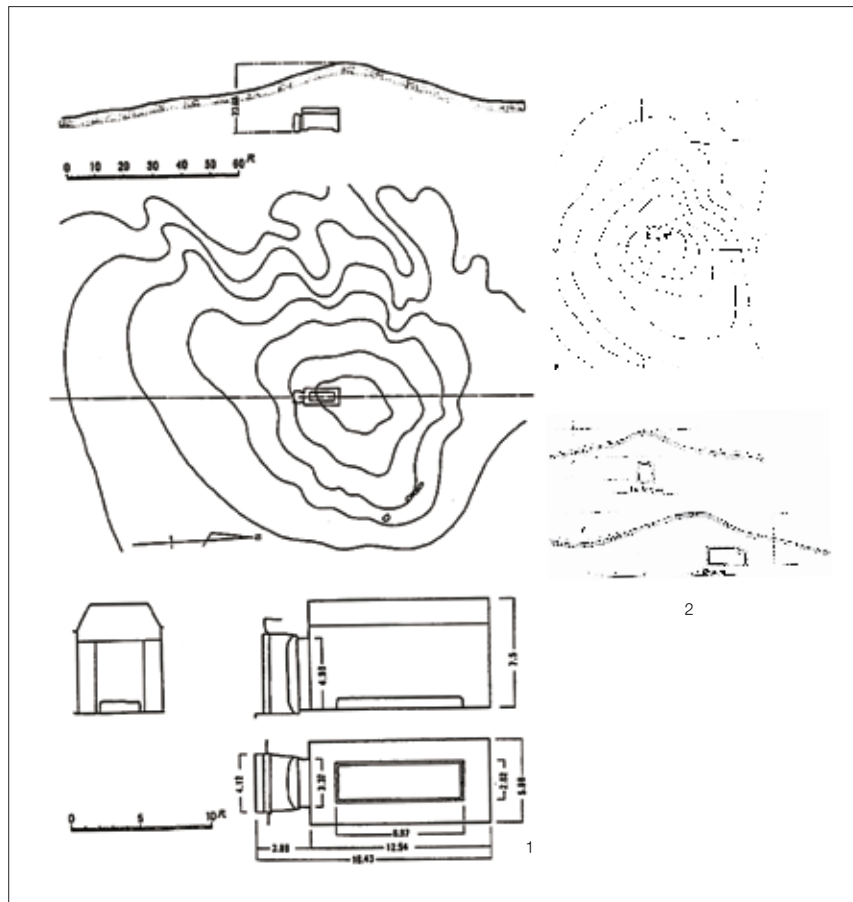
쌍릉에 대한 정식조사는 1917년 일본인 야쓰이 세이치(谷井濟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당시 보고서는 한 페이지에도 못 미치는 소략한 내용으로 봉토 둘레의 호석, 고분 축조에 사용된 석재, 대왕묘 내 목관 잔존 상태 등에 대한 간략한 기록과 석실의 구조로 볼 때 백제 말기의 왕족 능묘라고 단정적으로 그 성격을 추정하고 있다(朝鮮總督府 1920).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는 부여 능산리 동(東)고분군의 조사보고서 말미에 추가 형태로 쌍릉 출토 목관 관재가 능산리 고분군 출토품과 동일한 금송(金松)

01 『高麗史』 卷五十七 志卷第十一 地理二 전라도 금마군 '又有後朝鮮武康王及妃陵(俗號末通大王陵。一云。百濟武王。小名薯童)'

0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제33 益山郡 古跡條 '雙陵 在五金寺峯西數百步高麗史云朝鮮武康王及妃陵也俗號末通大王陵一云百濟武王小名著童 末通即薯童之轉'

03 『三國遺事』 卷第一 王曆 '第三十 武王 或云武康 獻丙 成小名 一耆餘德(庚)申立治四十一年'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武王 '武王 古卒作 武康 非也百濟無 武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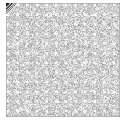
【 그림 1 】 익산 쌍릉 (1: 대왕릉, 2: 소왕릉)

[일본어로는 고야마키(高野嶺)]이라는 분석 결과(朝鮮古蹟 硏究會 1938) 및 대왕릉 발견의 목관 복원도를 제시하였다(梅原末治 1947). 이후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는 야쓰이 세이치의 보고문을 인용하여 구조적 특징과 계측 수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왕묘의 분구와 석실 실측도(그림 1)를 제시하였다(有光教一 1979). 이 논고들은 대부분 공주나 부여의 왕릉을 고찰하면서 쌍릉에 대하여 소략하게 언급한 정도이다. 해방 이후에도 국내학자들에 의한 심층적인 고찰은 없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일제강점기 조사 내용 정리와 의미에 대한 추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최완규 2001·2003; 이남석 2001·2014). 그러나 이 고분이 백제 도성인 사비를 벗어난 지역인 익산에 자리잡고 있다

는 사실은 구조적인 측면이나 출토유물을 논의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왕릉의 조성 상식을 벗어나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고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야쓰이 세이치가 조사할 당시 북쪽에 있는 것을 대왕묘, 남쪽에 있는 것을 소왕묘로 불렀다.⁰⁴ 모두 봉토의 유실이 심하였고 호석도 대왕묘의 경우 두셋을 확인할 정도만 남아 있었다. 대왕묘의 봉토 규모는 얼마 안 남은 호석열과 석실의 위치로 볼 때 지름 30m, 높이 5m 정도로 추정되었다. 부여 능산리 왕릉군의 분구에 비해 약간 큰 편이다. 고분은 남쪽으로 매우 완만하게 기울어진 구릉의 능선부에 축조되었다. 묘광 바닥은 분정 하 720cm 깊이에 있었다. 석실은 평면 장

⁰⁴ 현재는 일반적으로 대왕릉, 소왕릉으로 부른다. 여기서도 인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왕릉, 소왕릉으로 표기하였다.



방향으로 각 벽은 물갈이한 한 매의 판석이 사용되었으며 양 측벽의 상부에는 안으로 경사진 면을 가진 단면 평행사변형의 꺾임이 천장석을 받치고 있어 석실 종단면이 육각형을 이룬 평천장이다. 석벽은 모두 화강암제로 잘 다듬어졌다. 상면(床面) 가운데에 1매의 판석으로 한 단 높은 관대가 하나만 설치되었는데 길이 271cm, 너비 85.5cm이다. 조사 당시 찍어 있었지만 비교적 완전한 상태의 목관이 이 관대 위에 남아 있었다. 남쪽으로 난 석실의 입구는 폭 100cm 정도, 높이 150cm 정도이다. 연도는 100cm가 안 되게 짧은데 현문과 연도 입구에 모두 판석을 세워 폐쇄하였다.

소왕묘는 지름 24m, 높이 3.5m 정도의 원분으로 봉토 저부에 호석이 돌아갔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석실은 관대가 없는 점을 제외하면 대왕묘의 그것과 구조가 거의 같다. 분구와 석실 모두 대왕묘의 그것에 비해 작은 편이다.

쌍릉에서 보이는 원분과 호석은 부여 능산리 왕릉군과 공통되는 점인데, 규모는 쌍릉이 더 큰 편이다(표 1).

【 표 1 】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쌍릉의 비교

고분명	봉토			시설	석실유형	석실규모(cm)			기타
	형태	저경(m)	고(m)			길이	폭	높이	
동상총	원분	21		호석	단면육각형	325	200	211	관대 2 (각 판석 1매)
동하총	원분	26.5		호석	평천장 (단면 사각형)	327	152	195	방형 모전석 관대 1 (추가하여 2인용으로 변경)
중상총	원분			호석	단면육각형	300	136	158	관대 1 (판석 1매)
중하총	원분		고분군 중 최대	호석	타널형	321	198	215	
서하총	원분			호석	단면육각형	288	125	152	
쌍릉 (대왕릉)	원분	30	5	호석	단면육각형	380	178	227	관대 1 (판석 1매)
쌍릉 (소왕릉)	원분	24	3.5	?	단면육각형	320	130	170	-

쌍릉의 석실은 두 기 모두 종단면이 육각형을 이루고, 물갈이한 판석만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는 짧은 전형적인 능산리형 석실이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연도가 짧은 단면 육각형 석실은 나중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실은 무령왕릉의 영향을 받아 단면 타널형이고 연도가 매우 긴 중하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백제 황혈식석실에서 정교하게 다듬은 판석 관대는 왕릉군인 능산리 고분군에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판석 1매로 된 관대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중상총뿐이어서 쌍릉 피장자 성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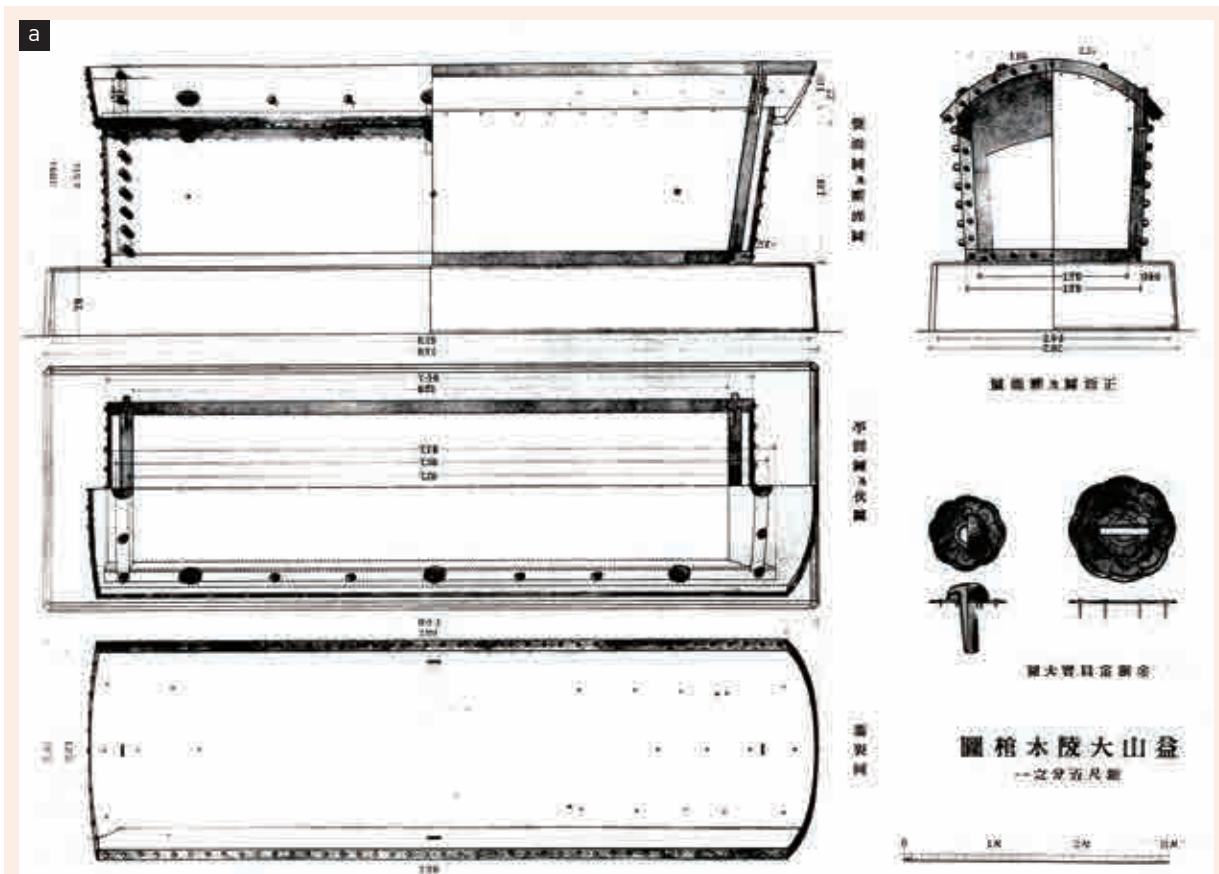
쌍릉의 두 석실 모두 이미 도굴된 상태여서 출토유물은 매우 적은 편이다. 대왕릉에서는 목관 일체·완형(殮形)토기·옥(玉)장신구·치아 3점 등이, 소왕릉에서는 금동제관식금구(金銅製棺飾金具)·관정(棺釘) 등이 출토되었다.

목관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른 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완형토기는 대왕묘의 석실 내에서 출토되었으나 현재 실물의 소재를 알 수 없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유리건판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회색 연질로 보이는데 사비기의 일반적인 완형토기와 기형이나 구연부가 조금 다르다. 바닥이 약간 등글며 구연부는 내만 기미를 보이며 외반하였다.

옥장신구(사진 1-c)는 옅은 갈색을 띠며 타원형에 가까운 심엽형 고리(횡경 2.5cm)인데 상부 중앙에 몸체보다 한 단 낮게 홈(폭 0.6cm)이 넓게 새겨져 있다. 이 장신구는 형태와 재질이 2013년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에서 발굴조사된 수나라 양제(楊帝, 재위 604~618)의 무덤(東家平·薛炳宏·秦宗林 2014)에서 출토된 접섭금옥대(蹀躞金玉帶)의 띠꾸미개(鈎板)에 달린 수하식(垂下飾)(사진 1-d)과 유사하다. 수양제의 무덤에서 출토된 옥대는 대구(帶具) 중에서는 최고 등급의 것⁰⁵으로 가장 완전하게 갖추어진 13환접섭금옥대(環蹀躞金玉帶)로는 중국에서 유일하다.⁰⁶ 612년 수(隋)에

05 621년 제정되었으며 674년에 관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唐의 의복제를 보면 금옥대 13과는 3품 이상이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山本孝文 2005:308).
 06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홈페이지(http://www.kaogu.cn) 江蘇揚州曹莊隋唐墓(隋煬帝墓) 2014.4.11.



a. 목관



b. 금동제관식금구



c. 옥신장구



d. 수 양제묘 금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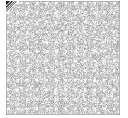
e. 감속성 대운사지(大雲寺地) 금관 모양 사리용기

【 사진 1 】 익산 쌍릉 출토 유물 및 비교 자료

조하(朝賀)하였을 때 양제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나 624년 당 고조가 무왕을 대방군왕백제왕(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것⁰⁷과 관련하여 백제에 수입된 중국제 옥대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옥대의 이러한 위상과 시기로 볼 때

그것을 소지하거나 찰 수 있었던 주인공은 무왕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대금구는 아니지만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중 귀형문전(鬼形文傳)에도 방형 과관에 소환이 달린 허리 띠가 표현되어 있는데, 무왕 옥장신구는 이 소환에 해당하는

07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春二月 '隋 煬帝 將征高句麗王使 國智牟 入請軍期帝悅厚加賞錫遣 尚書起部郎 席律 來與王相謀'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二十五年 '春正月遣大臣入 唐 朝貢 高祖 嘉其誠款遣使就冊爲 帶方 郡王百濟王.'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 하류 남안과 만경강유역권인 군산, 익산, 전주 및 완주지역 중에서 횡혈식석실⁰⁸은 우선 군산 산월리·익산 금성리유적처럼 금강 하류 남안의 산지에서 5세기 중엽경인 한성기 말에 등장한다. 금강 하류 남안의 산지에는 익산 입점리·용포리, 군산 장상리·여방리 고분군처럼 한성기에 이어 웅진기, 사비기의 고분이 지속적으로 군집을 이루며 조영된다. 한편 횡혈식석실은 금강 하류 남안에 이어 내륙으로도 전파되어 익산 서두리2유적·동룡리 유적, 전주 마전·안심유적처럼 현지의 전통적인 분구묘 묘제의 특징(저평 구릉 입지, 지상에 매장주체부 축조, 주구 돌림)이 가미되며 적어도 웅진기 초기에는 등장한다. 다만 군집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후 사비기에 쌍릉과 같은 능산리형 석실이 등장한다.

능산리형으로 불리는 전형적인 단면 육각형 석실은 부여에서 6세기 중엽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후엽 이후에 보편화되며 백제 멸망 시까지 존속하였다고 보고 있다(吉井秀夫 1991·1992: 43). 금강 하류 남안 산지, 익산 동부 내륙(금마 중심), 완주, 전주지역에서도 능산리형 석실이 조영된다. 무왕의 익산 경영, 쌍릉의 조영 등은 이러한 석실의 축조 배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익산 성남리 고분군처럼 무리를 이루는 사례는 적고 익산 원수리·용기리유적II, 완주 둔산리 고분, 전주 덕진동 고분처럼 대부분 수기만이 축조된다. 이외에도 석재 가공 정도로 보아 전형적인 능산리형 석실보다 하위 등급으로 추정되는 석실이 군산 여방리·장상리, 완주 은하리·용암, 전주 평화동·효자동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금강 하류 남안과 만경강유역권의 정치 중심지로 금마 일대가 새롭게 성장한 것을 계기로 주변 지역이 백제 묘제의 규제 아래 들어가며 지역별·집단별로 석실 구조에 차별이 두어진 것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쌍릉은 그 구조와 석재의 가공도 및 출토유물로 볼 때 부여 능산리의 왕릉들과 비교할 수 있는데, 규모면에서 오히려 대형이고 구조와 부장품으로 추

정되는 축조 연대가 7세기 전반 경에 해당하며, 무왕과 관련된 기록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익산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왕과 그 비의 능으로 추정된 견해(최완규 2001·2003; 이남석 2001·2014)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백제왕들의 목관

1) 목관의 의미

목관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주요한 매장주체시설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통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판재를 조립하여 만들었다. 판재관은 조립 및 시신 안치 장소가 다른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묘광(실) 안에서 조립된 것은 주로 관못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토광목관(곽)묘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용되었다. 한편 빈소에 일정 기간 시신을 안치하였다가 무덤으로 옮기는 데 사용한 목관은 관못으로 결구하고 목관을 운반하기 위한 관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주로 횡혈식석실묘에서 사용되었다.

못과 꺾쇠를 함께 쓴 목관은 한성기 백제 횡혈식석실묘 목관의 전형이었고(金武重 2013; 심환석 2014) 웅진기 이른 단계까지 그 전통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못과 꺾쇠를 쓴 목관은 공주 수촌리 1호분처럼 횡혈식석실묘가 유행하던 시기의 대형 토광묘에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무령왕릉 이전의 횡혈식석실묘에서 사용된 목관은 관못과 꺾쇠를 사용하지만 관고리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경우 목관에 관고리가 사용된 고분은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5호분과 같이 웅진기 늦은 시기의 고분에 한정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적어도 관고리를 쓴 전형적인 사비기의 목관 구조의 출현은 무령왕릉의 축조를 계기로 백제에 정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吉井秀夫 1995). 즉,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목관은 백제에서 관고리를 갖춘 목관의 성립과 보급의 기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08 이 지역 횡혈식석실묘의 최근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이문형의 글(2012·2013)을 참고하였다.

(吉井秀夫 2007).

목관묘·목곽묘·수혈식석실묘 등의 수혈계 묘제와 달리 무령왕릉을 비롯한 횡혈계 묘제에서는 매장주체시설과 분구가 완성된 후에 피장자가 매장되어 매장에 관련된 주요한 장송의례의 장소는 매장주체시설 주위에서 고분의 앞 혹은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고 여겨진다. 무령왕릉의 경우 왕과 왕비는 죽은 후 무덤에 매장되기 이전에 빈소에 2년 이상 안치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빈소로 정지산유적이 지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빈소에서 고분까지 피장자를 운반하는, 즉 ‘들어 나르느’ 도구로서 목관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횡혈식 석실묘에 사용된 목관에 관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관못을 사용해 관재를 단단히 결합한 것은 그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목관의 장식은 당시의 장례에서 피장자가 무덤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조문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어필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빈소에서 피장자를 안치하는 도구로도 목관이 이용되었다면 사람들이 목관을 목격하는 기간·기회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 이것은 고분에 매장될 때까지 목관은 피장자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능한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목관의 상징성으로 인해 당대 최고의 금공기술을 구사하여 목관을 장식한 것이고 목관의 장식 정도가 피장자의 계층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吉井秀夫 1995·2007). 이처럼 목관의 구조 차이는 상장례(喪葬禮)의 광경도 다르게 하였을 것이다.

한편 횡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되는 관못과 관고리는 목관의 위치 및 수, 규모 및 관재의 두께를 추정하는 재료로 이용된다. 왕릉급 고분에서는 머리 형태나 길이가 다른 복수의 관못이 사용되고 출토 수량도 매우 많아 못이 관재의 결구 이외에 장식용으로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장식된 목관이라도 익산 입점리 1호분이나 함평 신덕고분 등과 같은 지역 수장급 무덤에서는 철정과 은관을 씌운 관못 정도가 출

토되었다. 이외에 대부분은 철정만으로 결구된 목관으로 일부 철제 관고리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결여된 것이다. 백제의 일반적인 횡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된 관재는 두께 3cm 정도이며 관고리와 관못의 위치로 추정할 수 있는 목관의 규모는 길이 180~190cm, 폭 50~60cm이다(吉井秀夫 1995).

2) 왕릉 목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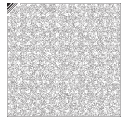
쌍릉 출토 목관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웅진기 및 사비기 백제의 다른 왕릉에서 출토된 목관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① 무령왕릉의 목관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목관이 출토되었는데, 형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두께가 5~6cm나 되는 두꺼운 관재로 조립된 목관으로 관신(棺身)은 장방형이고 관 뚜껑(棺蓋)은 특수한 옥개형(屋蓋形)을 이룬다. 관의 내·외면은 모두 옷칠하여 검은 색을 띤다. 뚜껑 관재의 이면 아래쪽 가장자리에 관신을 고정하기 위한 홈이 패여 있다. 외부 측면에는 관고리를 6개 부착하였으며 금은으로 머리를 장식한 다양한 형태의 관못을 배열하였다.⁰⁹

무령왕릉 목관에서 특이한 것은 관 뚜껑이다. 이 관 뚜껑은 자유롭게 개폐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왕의 관 뚜껑은 5매, 왕비의 관 뚜껑은 3매의 관재를 사용하였는데, 중심 천판(天板)을 가운데에 두고 그 좌우 양편에 경사면을 두어 목조가옥의 맞배지붕과 같은 인상을 준다. 옥개형으로 된 관 뚜껑의 좌우 경사면이 평활한 사면이 되지 못하고 계단형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조적으로 관 뚜껑을 받치는 골격 역할을 하는 것은 관신의 마구리판으로 상부를 뚜껑의 형태에 맞게 융기시키고 있다. 이 융기부에 뚜껑 관

⁰⁹ 무령왕릉 목관에 대해서는 윤무병 1975; 윤무병·서요선·박상진 1991; 박상진·강애경, 1991; 吉井秀夫 1995를 종합하였다. 최근의 견해나 조사 내용은 따로 인용 표시를 하였다.



재를 걸친 다음 관뿔을 박아 고정하였다. 왕의 관 뚜껑에 사용된 관재들은 중심 천판이 가장 길고(262cm) 좁은 반면에 양측 하단 관재는 가장 짧고(252cm) 넓어 서로 체감률을 적용하고 있다. 왕비의 관 뚜껑도 마찬가지로 양상이다. 관 뚜껑의 안쪽에는 금판을 씌운 못들이 열을 이루며 박혀 있어 비단과 같은 직물을 늘어뜨리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과 왕비의 목관에는 관재의 결구를 위한 관정, 관의 운반을 위한 관고리 및 그 부속구인 좌판(座板)이 부착되어 있다. 관정은 길이가 다양하며 머리는 화형원두형(花形圓頭形)과 방두형(方頭形)이 있다. 대부분 못 머리에는 은판을 씌웠으며 은판에 도금된 예도 있다. 또 은피칠화형좌금구(銀被七花形座金具)와 결합된 관정도 있다. 화형원두정은 주로 관 뚜껑 및 관신 측판과 마구리판의 결합에 사용되었고, 방두정은 주로 바닥판과 마구리판이나 측판의 결합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왕과 왕비 목관의 관고리는 철지판에 얇은 은판을 씌운 큰 판 위에 금동의 작은 판을 겹친 이중의 8엽화형 좌판에 금동제 고리가 달린 것이다. 관고리는 측판에 두 개씩, 마구리판에 한 개씩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왕의 목관 관고리로 추정하였던 원형의 오목한 철지판에 은판을 씌운 고리(윤무병 · 서오선 · 박상진 1991)는 현실 입구 나무문에 부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37). 그 외에 은제화형장식은 목관의 잔편에 부착된 채 발견되어 목관 장식으로 추정되지만 발견된 수량이 99개체나 되어 일부는 목관의 장엄용으로 주변에 뿌려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왕비의 목관재와 함께 시상도 확인되었다. 시상은 시신을 고정하기 위해 목관 바닥에 놓인 것으로 장방형의 긴 목재 3매와 이것을 연결하는 가로 목재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길이 232.3cm, 폭 57.6cm 전후이다(국립공주박물관 2011: 33).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관재는 금송으로 가공하기 이전의 일부 원목은 직경 130cm, 수령 300년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원목 상태 혹은 거칠게 가공한 상태로 당시 왜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②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목관

사비기 백제 왕릉군인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도 목관 및 그 부속구가 출토되었다. 중상층에서는 옷칠한 목관 뚜껑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잔존 길이 176cm, 잔존 폭 53cm로 단면 형태는 호형을 이룬다. 평면이 규형(圭形)을 이루는 금동제 투조금구(金銅製透彫金具), 화형금구, 관뿔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동하층에서는 관신의 마구리판을 장식한 테두리 금구가 발견되었는데 하부는 네모나고 상부는 활모양의 선을 그리며 돌출되어 있다. 능산리 7호분과 능산리 동1호분에서는 금박이 입혀진 목관편이 남아 있었다(吉井秀夫 1995). 능산리 고분군에서는 중상층¹⁰과 7호분(洪思俊 1966)에서 쌍릉 출토품과 같은 금동제관식금구가 출토되었다.

③ 쌍릉의 목관

쌍릉 중 대왕릉에서 출토된 목관은 출토 당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구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전시된 적이 있으며 현재는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최초의 목관 실측도는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947)에 의해 제시되었다. 목관(사진 1-a)은 측판의 가장자리 안쪽에 홈을 마련하여 마구리판을 끼워 넣은 구조이다. 뚜껑은 단면 호형(弧形)이며 길이 방향의 양단은 중앙이 약간 밖으로 벌어진 곡선을 이루는데 한쪽이 약간 더 돌출하여 대칭은 아니다. 관신은 길이 227cm, 폭 60cm(하단)~65cm(상단), 높이 66cm이고, 뚜껑은 길이 257cm, 너비 76cm이다. 관재의 두께는 4.4cm이다. 측판과 마구리판은 위로 갈수록 약간 밖으로 벌어지도록 결구하였는데 한쪽 마구리판은 8°정도로 기울었는데 반대편 마구리판보다 기울기가 크다. 이에 따라 목관의 종단면은 위가 넓은 상원하방형(上圓下方形)을 띤다. 마구리판은 뚜껑의 곡률에 맞는 상부의 반원형판과 몸체에 해당하는 하부의

10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백제조각 · 공예도록-백제유물도록 제3집』 p.218에서만 중상층 출토로 기재하였다.

방형관이 따로 만들어졌는데 목재도 다르다.

목관은 여러 형태의 관못과 금구로 결구 및 장식되어 있다. 관못은 박은 부위에 따라 길이와 머리 형태가 다르다. 바닥관에서 측판과 마구리관으로 박은 못은 머리는 납작한 원형이며 몸체는 단면 방형으로 길이 15cm 내외이다. 이 못만 도금되지 않은 청동제이고 나머지 둥근 머리의 관못은 모두 금동제이다. 측판에서 마구리관으로 박은 원두정은 길이 15cm이다. 뚜껑에서 측판 또는 마구리관으로 박은 원두정은 길이 4.5cm이다. 이 두 원두정은 못머리의 직경이 3cm 정도 된다. 뚜껑, 측판 및 바닥관의 테두리에 장식용으로만 박은 원두정은 머리 직경 1.5cm 내외, 길이 3.5cm 내외로 짧다. 이처럼 대왕릉의 목관에 사용된 관정은 바닥관에서 박은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도금되어 있는 단면 반구형의 원두정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왕릉에서 발견된 것들과 유사하다.

한편 연관이 선각된 금동제 좌금구와 관식금구로도 결구 및 장식되어 있다. 좌금구 중 큰 것(사진 1-b의 오른쪽 하단)은 직경 7cm로 가로로 긴 장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어 소왕릉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금동제관식금구를 끼워 받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좌금구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데 8엽의 중판 형태이다. 내외 연관 및 간관 끝부분에는 짧은 집선문이 새겨져 있다. 바깥 연관 사이에 작은 못 여덟 개를 박아 목관에 부착하였다. 관식금구 뿌리의 원공에 박은 못을 받치는 작은 좌금구(직경 5cm)도 역시 8엽 연화문이며 연관 끝부분에 집선문이 새겨져 있다(사진 1-a의 오른쪽 하단). 두 좌금구에 보이는 연관과 시문기법은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기에도 보인다. 관식금구 뿌리에 박은 결구용 못은 머리는 단면 버섯모양의 원두정이고 몸체는 단면 원형이며 끝부분이 뾰족하여 다른 못과 구분된다. 대왕릉 목관에 사용된 금동제관식금구는 남아 있지 않지만 관재에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 관 뚜껑의 장측에 3개씩, 단측 중앙에 1개씩 모두 8개를

관 뚜껑에서 관신 방향으로 박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측판 혹은 마구리관까지 구멍을 뚫어 실질적으로 결구에 의미가 있는 것은 뚜껑 각 변 중앙의 4개(구멍의 폭 4.5~4.7cm)이고 나머지 모서리에 있는 4개는 뚜껑도 관통되지 않은 구멍에 짧은 뿌리를 가진 관장식을 끼워 장식용으로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모서리의 구멍에 꽂힌 관식금구는 뿌리의 폭도 좁다. 따라서 이곳에는 측판에 관식금구를 고정할 것이 필요 없으며 실제로 흔적도 잘 보이지 않는다.¹¹ 이렇게 못과 금구로 결구하여 관은 여단을 수 없게 밀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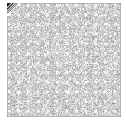
대왕릉 목관에는 무령왕릉 목관 등에서 보이는 관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테두리에는 부여 능산리 동하층 목관처럼 금동판을 접어 부착하지 않고 일정한 폭으로 금칠만 하였다.

한편 목관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목재는 금송으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목관 및 무령왕릉의 관재와 같다. 왕의 관을 제작하는데 왜에서 가져온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소왕릉에서 출토된 금동제관식금구는 부여 능산리 왕릉군에서 출토된 것과 형태와 크기가 거의 같다(사진 1-b). 이 금구는 능산리 고분군 출토품을 보면 머리와 뿌리로 구분되는데, 머리는 세 개의 넝쿨 모양 금동제 고리가 산형(山形)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 청동제의 장방형 판이 부착되어 있다. 소왕릉 출토품은 세 개가 남아 있는데 뿌리는 없었고¹² 머리 부분만 잔존한다. 대왕릉 목관의 관 뚜껑에는 이러한 금구를 박기 위한 구멍이 8개 있지만 측판까지 관통된 것은 네 개뿐인 것으로 보아 원래 뿌리가 짧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는 장방판의 하단에 목관 측판에 고정하기 위한 못이 통과하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이다. 세 개의 관식금구는 머리의 형태와 볼륨감 뿐만 아니라 뿌리가 이어지는 부분의 폭도 3.3cm,

11 쌍릉 목관의 구조와 관련하여 梅原末治(1947) 등의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필자가 2014년 5월 15일과 8월 26일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유물을 직접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유물 관찰에 협조해 준 박물관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12 사진에 보이는 뿌리는 모두 복원된 것이다.



4.8cm로 다르다. 닝쿨 형태를 이루는 머리 장식의 세 고리가 두 개는 입체감이 없이 편평하고 다른 하나는 가운데에 모[稜]가 나 있다. 하단부도 전자는 등글고 후자는 직선적이다. 이런 차이는 끼운 위치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전자는 관 뚜껑의 모서리에 좁게 뚫린 구멍에 끼운 것이고 후자는 넓게 측판까지 뚫린 각 변 중앙의 구멍에 끼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구에는 머리 부분 가장자리를 따라 새겨진 음각선과 상부 고리의 집선문이 보이지 않아 그것이 잘 남아 있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출토품보다 약식화된 형태로 보인다.

쌍릉에서 출토된 목관은 무령왕릉의 그것과 차이 나는 점이 있다. 우선 대왕릉 출토 목관은 마구리관의 하나를 바깥 쪽으로 경사시키고 있으며, 관신의 단면형은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씩 벌어지는 상원하방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뚜껑은 평활하게 곡면을 이룬 하나의 판재를 사용하였다. 무령왕릉의 목관들은 모두 4면의 측판을 수직으로 세워 조립한 직방체의 관신을 갖추었다(운무병 · 서오선 · 박상진 1991).¹³ 한편 대왕릉 목관에는 관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고분으로 목관을 들어 나르는 광경이 무령왕릉의 그것과는 달랐음을 시사한다. 즉, 빈소가 멀어 고분에서 목관을 직접 조립하였는지 사람들이 들지 않고 마차 등에 싣고 부여의 빈소에서 옮겨 왔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왕릉의 목관 구조는 무령왕릉 목관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전의 백제 목관에서 계보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조가 수당대(隋唐代)의 관곽형(棺槨形) 사리용기에서 확인되어 주목된다(사진 1-e). 위가 넓은 상원하방형의 사리용기는 당시 황실의 장송의례에서 사용된 현실의 관곽 형태를 따라 만든 것이다(주경미 2003). 당시 백제와 중국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쌍릉에서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실증하는 금옥대의 수하식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왕릉 목관의 구조는 남북조시대 이후 유행한 중국의 상원하방형 관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3) 왕릉의 목관에 사용된 나무

익산 쌍릉에서 출토된 금송제 관재는 무령왕릉, 부여 능산리 왕릉군에서도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웅진기 이후 왕들이 사용한 금송이라는 관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비기 백제 왕릉에서 사용된 목관재가 금송이라는 감정 결과와 그 의미는 1937년 조사된 능산리 동고분군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되었다.

‘금송은 분포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한반도에는 없고 일본에서는 남휴가(南日向(현재의 미야자키현))에서 북기소(北木曾(현재의 나가노현))에 걸쳐 자생하는데 주산지는 기이(紀伊)와 기소(木曾)이다. 옛날과 오늘날의 수종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 목재는 보존에 적합한 재질이어서 일본 고대에 관재로 많이 사용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왜에서 백제로 들여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백제와 왜의 관계를 고려해도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종래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문물이 전래된 점만이 강조되었는데, 단지 목재에 불과하지만 일본열도에서 한반도로 전해진 문물의 한 사례로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양국 문화 교류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朝鮮古蹟研究會 1938: 141).’

금송은 일본어로 고야마키(コウヤマキ, 高野槇, 學名: *Sciadopitys verticillata*)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 제주도의 고유종이다. 상록침엽수로 고목(高木)이 된다. 고야마키과는 1속 1종으로 고야마키만 포함한다. 예전에는 세계 여러 곳에 넓게 분포하였지만 갱신세(更新世) 이후에는 일본과 한국 제주도에만 남아 있다. 정원에 식재하며 재목으로도 이용된다. 물에 강하고 잘 썩지 않아 현재도 나무욕조(桶)나 교량재로 애용되고 있다. 일본명은 고야산(高野山) 진언종(眞言宗)의 총본산인 고야산에 많이 자라는 데서 유래하였다.¹⁴

일본에서 금송은 야요이(弥生) 및 고훈(古墳)시대에 최

¹³ 다만 쌍릉 목관은 뚜껑을 자유롭게 개폐할 수 있다고 본 견해는 관식금구로 뚜껑이 측판에 고정된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¹⁴ <http://ja.wikipedia.org/wiki/%E3%82%B3%E3%82%A6%E3%83%A4%E3%83%9E%E3%82%AD>

상급의 관재(棺材)로 사용되었다. 야요이시대의 경우 긴키(近畿)지방의 결구식(結構式) 목관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목관 구조의 차이와 방형주구묘(方形周溝墓) 내의 목관의 위치 관계로 보아 다른 수종이나 일부만 금송을 사용하는 목관의 피장자에 비해 금송만으로 만들어진 목관의 피장자는 더 높은 계층에 속하며 아마 각 지역의 수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송은 고훈시대에도 긴키지방을 중심으로 한 전방후원분 등의 매장시설에 안치된 장대한 목관의 관재로 많이 사용되었다(吉井秀夫 2001). 한편 일본의 긴키지방 중앙부에서는 3세기 후반 이후 식생과는 관계없이 편백(檜)이 집중 이용되고 있어 목재를 공급하는 전업집단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편백과 집중 이용 지역이 겹치는 금송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급·이용 양상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야요이시대부터 고훈시대에 걸쳐 긴키지방 사람들에게 금송은 최적의 목관재로 여겨졌으며 그것을 사용하는 데도 얼마간의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吉井秀夫 2007).

목관으로 사용하려면 우량 개체를 선택하여 벌채하였을 것이므로 금송이 상당한 면적의 삼림을 구성하고 있어야 하지만 무령왕릉이 축조되던 시기에 한반도에 대량으로 분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화분조사에서도 한반도에 금송이 존재한다는 보고는 없다. 또한 금송은 아름다운 수형 을 가지고 있어서 조경수로서 아주 적합한데 과거 문헌 기록에 전혀 남아 있지 않다(윤무병·서오선·박상언 1991). 이런 점에서 왜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에서 수입된 목재는 금송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수종이 밝혀진 무령왕릉 목재유물 총 45점 중 41점이 금송, 편백, 삼나무 등 일본특산 수종이 차지하고 있는 것(김수철 2011)은 왜에서 백제로 다양한 목재가 대량으로 반입된 정황을 보여준다.

금송을 사용한 일본열도 목관의 구조는 못과 관고리를 사용한 무령왕릉의 목관과는 전혀 다르므로 무령왕릉 목관에 사용된 금송은 통나무 내지 관재로 백제에 보내졌을 것이다(吉井秀夫 2001).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출토 관재로 보아 무령왕 이후의 백제 왕 및 왕족들이 사비기에도 계속해서 금송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제 중앙귀족급의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부여 능산리 능안골 고분군에서는 금송이 아니라 비자나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면 금송은 백제 왕족이 독점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목관의 제작(금송의 입수, 건조, 가공, 못과 관고리 등 금구의 제작, 옷칠, 비단 제작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미리 왜에서 금송을 항상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하는 체제가 존재했을 것이다(吉井秀夫 2001). 이처럼 왜에서도 이용에 규제가 따랐다고 여겨지는 금송을 대량으로 입수하고 그것을 백제왕족이 독점적으로 이용한 체제의 존재야말로 무령왕릉 이후의 백제와 왜 왕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자 당시 백제의 정치체제의 일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吉井秀夫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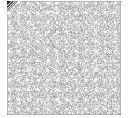
일본열도에서 최고의 관재로서 긴키 지방의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던 금송이 백제로 보내져 무령왕릉 등의 목관으로 사용된 역사적 배경으로는 역시 당시의 백제와 왜 왕권 사이의 밀접한 교섭 관계를 들 수 있겠다. 백제는 선진문물 뿐만 아니라 오경박사와 같은 여러 기술자나 불교와 같은 새로운 종교까지 제공했다. 이러한 문물과 기술에 대한 보답으로 왜 왕권이 백제로 보낸 것 중 하나가 금송이었을 가능성이 있다(吉井秀夫 2001).

무왕릉이 익산에 축조된 배경

1. 익산과 무왕의 관계

앞에서 쌍릉을 무왕과 그 비의 능으로 추정하였는데, 그렇다면 왜 무왕릉은 도성인 사비가 아니라 익산에 축조되었을까?

익산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인 사비, 즉 지금의 부여와 함께 일찍부터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익산 중에서도 금마면



일대에는 왕궁(익산 왕궁리 유적), 거대한 사찰(미륵사지, 제석사지), 산성들(익산토성, 미륵산성, 저토성 등),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쌍릉) 등 고대 도성의 경관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고지형 분석을 통해 도시의 흔적인 도로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익산은 천도 여부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백제의 또 하나의 도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왕성이 축조된 후 얼마 안 있어 사찰로 변화되고 왕궁 주변 등에서 거주구역의 흔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은 도성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그 역할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증거와 함께 『삼국유사』의 무왕조 기록,¹⁵ 『관세음응험기』의 천도 기록,¹⁶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동 관련 기록¹⁷ 등의 문헌기록도 익산이 무왕의 지역적인 기반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익산은 무왕에게 있어서는 즉위 이전까지 생활한 삶의 터전으로 마을 캐며 황금을 구니(丘泥)처럼 쌓아놓았다는 점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곳에 물적 기반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노중국 1988: 199).

무왕이 법왕의 적통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삼국유사』에 무왕의 모후가 과부(寡婦) 혹은 빈모(貧母)로 표현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왕은 법왕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력기반이 약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며, 모후는 당시 주목받지 못하던 익산지방의 귀족세력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金壽泰 1999: 123).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동 관련 기록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빈부(嬪婦)가 언급되는 무왕 39년의 기사¹⁸를 보면

무왕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을 것이다(金壽泰 1999).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영기에 의하면 재물을 회사해서 가람을 창건하고 639년에 사리를 봉안한 사람은 좌평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이다. 익산 경영의 추진 혹은 주요 협조세력은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이었을 것인데, 익산의 대표적인 사찰인 미륵사 서탑 건립의 발원자가 사택씨라면 익산은 사택씨의 주요 근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박현숙 2009). 한편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는 미륵사 창건의 발원자로 나오고 실제 공사에 신라의 백공(百工)이 참여하였다고 하므로 그도 익산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익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비가 소왕릉에 묻혔다고 가정하면 사택적덕의 딸이나 선화공주 모두 소왕릉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642년에 의자왕의 모후¹⁹가 죽었는데 그가 사택적덕의 딸이나 선화공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익산이 무왕의 근거지였을 가능성,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든 방계 왕족이든 모후는 정비가 아니어서 사비에서의 기반이 약했을 가능성²⁰과 함께 백제에서 왕릉이 왕계나 왕별로 능역을 달리하여 조영되었을 가능성(이남석 2014)을 고려하면 익산에 무왕릉이 조영되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2. 백제에서 익산의 중요성

무왕은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익산지역을 자신의 세력기반으로 삼기 위한 일련의 작업인 익산경영을 시도하였는데, 익산이 선택된 것은 모후 가문의 세력 기반이 있었던 곳일 가능성, 왕권의 적극적인 추진과 마룡지 등이 시사

15 『三國遺事』 卷第2 奇異第2 武王條: 吾自小掘薯之地委積如泥土——於是聚金積如丘陵詣龍華山師子寺知命法師所問輸金之計師曰吾以神力可輸將金來矣. 무왕이 어릴 적에 익산에서 지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마을 캐며 금을 발견하여 쌓아놓은 것을 용화산 사자사에 있던 지명법사의 신통력으로 신라로 옮기려 했다는 것으로 보아 마을 캐며 생활한 곳과 사자사가 가까운 곳임을 추정할 수 있다.

16 牧田諱亮, 1970,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 平樂寺書店.

17 『新增東國輿地勝覽』, 익산군 산천조: 馬龍池 在五金寺南百餘步世傳薯童大王母築室處.

『新增東國輿地勝覽』, 佛宇條 五金寺: 在報德城南世傳薯童事母之孝 掘薯積地忽得五金後爲王創寺其地因名焉.

18 『三國史記』 권제27 백제본기 제5 무왕조.

19 『日本書紀』 皇極期 元年 二月: 今年正月 國主母薨.

20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武王 第三十 武王名璋母寡居築室於京師南池邊池龍交通而生小名薯童器量難測常掘薯積賣爲活業國人因以爲名'

하는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이를 토대로 한 지역세력의 성장, 금과 관련된 기사로 추정되는 금광의 개발,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盧重國 1988; 노중국 2001).

무왕은 즉위 초기 왕권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라 정벌을 계획하였다. 이에 무왕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로 접근하기 위해 운봉고원-함양-합천 코스를 선택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근거지이자 후방의 교통 거점인 익산이 자연스럽게 중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김주성 2009). 이러한 코스의 중요성은 5세기 이후 금동관이나 금동신발과 같은 백제 위세품이 합천 옥전 23호분과 남원 두락리 32호분에 부장된 점을 통해서도 방증된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무왕 대에 익산 경영은 신라와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된 사정과 그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성격과도 관련이 깊다(兪元載 1996). 실제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왕 3년(602) 아막산성 및 소타 등 4성 전투부터 37년(636) 독산성 전투에 이르기까지 14차례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 이 중 백제가 먼저 공격한 경우가 11건이다. 602년 전투에서는 4만의 보기를 동원하였으나 대패하였다(표 2).

【 표 2 】 『삼국사기』 백제본기 제5 무왕조에 보이는 대신라 전투 현황

연번	연도	선공	지휘관	장소	병력	승패
1	3(602)	백제		阿莫山城(일명 母山城)		패
2	3(602)	신라	解懸(백제) 乾品, 武殷 (신라)	小陀, 畏石, 泉山, 囊岑	백제 步騎 4만	패
3	6(605)	신라		동쪽 국경		-
4	12(611)	백제	讚德(신라)	檜岑城	大兵	승
5	17(616)	백제	달솔, 首奇	母山城	8천	-
6	19(618)	신라	邊品(신라)	檜岑城		패
7	24(623)	백제		勒弩縣		-
8	25(624)	백제		迷含, 櫻岑, 歧岑, 烽岑, 旗縣, 穴(穴)柵 등 六城		승
9	27(626)	백제		王在城		승

연번	연도	선공	지휘관	장소	병력	승패
10	28(627)	백제	沙乞	신라 서변의 두 성		승
11	29(628)	백제		檜峰(岑)城		-
12	33(631)	백제		알 수 없음		-
13	34(633)	백제		西谷城		승
14	37(636)	백제	于冪(백제), 關川(신라)	獨山城	甲士 五百	패

무왕 사후에도 익산의 중요성은 의자왕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것은 무왕 재위 후반기에 창건된 제석사 및 미륵사와 같은 대사찰이 백제 멸망 때까지 계속 운영된 점이나 비록 사찰로 전용되었지만 왕궁 일원이 여전히 중요한 시설로 존속된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위 2년에 미후(彌猴) 등 사십여 성과 대야성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것²¹도 무왕대의 대 신라 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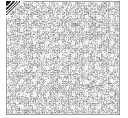
의자왕은 부왕 및 모후가 익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천도까지 추진한 점, 익산의 지정학적 중요성, 익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귀족세력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고려하여 무왕과 그 비의 능을 익산에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맺음말

이상에서 익산 쌍릉의 묘제 및 목관의 특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쌍릉은 묘·장제뿐만 아니라 옥장신구와 같은 부장유물 그리고 익산과 무왕의 관계를 통해서도 무왕과 그 비의 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에 백제 왕릉, 즉 무왕릉이 조성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비가 아니라 익산을 기반으로 왕이 된 무왕이 익산을 중요시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신라와의 관계에서 익산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익산 경영의 요인이 되었다. 익산에 도성의 경관을 이루는 주요 시설을 세운 것은 천도 혹은 그에 준하는 행위의 준비와 일부 실행을

21 『三國史記』卷第二十八 百濟本紀 第六 義慈王 二年 “秋七月王親帥兵侵新羅下彌猴等四十餘城 八月遣將軍允忠領兵一萬攻新羅大耶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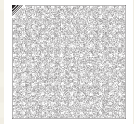


보여준다. 다만 귀족과 사서인(士庶人)의 거주구역 등 도시로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무왕 사후에도 익산의 중요성은 의자왕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것은 무왕 재위 후반기에 창건된 제석사 및 미륵사와 같은 대사찰이 백제 멸망 때까지 계속 운영된 점이나 사찰로 전용되었지만 왕궁 일원이 여전히 존속된 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승의식이 무왕과 그 비의 능을 익산지역에 조성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립공주박물관, 2011, 『무령왕릉을 格物하다-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 吉井秀夫, 2007, 「古代東アジア世界からみた武寧王陵の木棺」 『日中交流の考古學』, 同成社
- 吉井秀夫, 2001, 「무령왕릉의 목관」 『百濟 斯麻王-무령왕릉 발굴 그 30년의 발자취』, 국립공주박물관
- 吉井秀夫, 1995, 「百濟の木棺-横穴式石室墳出土例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第542號
- 吉井秀夫, 1992, 「熊津·泗泚時代 百濟 横穴式石室墳의 基礎研究」, 慶北大學校碩士論文
- 吉井秀夫, 1991, 「朝鮮半島錦江下流域の三國時代墓制」 『史林』 七十四卷 一號, 史學研究會(京都大學文學部內)
- 金武重, 2013, 「百濟漢城期横穴式石室墳의 構造と埋葬方式」 『古文化論叢』 第69集, 九州古文化研究會
- 김수철, 2011, 「무령왕릉 출토 목재의 수종」 『무령왕릉을 格物하다-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 金壽泰, 1999, 「百濟 武王代의 政治勢力」 『馬韓百濟文化』 第14집,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김용성, 2014, 「백제 후기 능묘와 능원의 특성」 『文化財』 제47권 제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주성, 2009, 「7세기 각종 자료에 보이는 익산의 위상」 『익산 왕궁리 유적-발굴 20년 성과와 의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엮음), 주류성
- 노중국, 2001, 「益山지역 정치체의 史的 전개와 百濟史上的 益山勢力」 『馬韓·百濟文化』 第15집,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梅原末治, 1947, 『朝鮮古代の墓制』, 座右寶刊行會
- 牧田諦亮, 1970,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 平樂寺書店
- 박상진·강애경, 1991, 「백제 무령왕릉 출토 관재의 수종」 『송국리Ⅳ』, 국립중앙박물관
- 朴淳發, 2012, 「高句麗의 都城과 墓域」 『韓國古代史探究』 12, 韓國古代史探究會
- 박현숙, 2009, 「百濟 武王의 益山 경영과 彌勒寺」 『익산 百濟 彌勒寺址의 재발견』, 고려사학회·전북역사문화학회
- 山本孝文, 2005, 「韓國 古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정석, 2006, 「益山 雙陵에 대한 斷想」 『역사와 역사교육』 제11호, 웅진사학회
- 束家平·薛炳宏·秦宗林, 2014, 「江蘇揚州曹庄隋煬帝墓考古成果專家論證會紀要」 『東南文化』 2014年第2期總第237期
- 심환석, 2013, 「백제 한성기 황혈식석실분 출토 棺附屬具 검토」 『漢江考古』 第9號, 한강문화재연구원
- 有光敦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 第4集
- 俞元載, 1996, 「百濟 武王의 益山經營」 『百濟文化』 第二十五輯, 公州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 尹武炳, 1975, 「武寧王陵의 木棺」 『百濟研究』 第6집,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윤무병·서오선·박상진, 1991, 「Ⅳ. 목관」 『백제무령왕릉』, 충청남도·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 이남석, 2014, 「익산 쌍릉과 백제유적」 『泗泚時代의 百濟考古學』, 서경문화사
- 이남석, 2001, 「百濟古墳과 益山 雙陵」 『馬韓·百濟文化』 第15집,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 이문형, 2013, 「益山地域 百濟 横穴式石室墳의 受容과 展開」 『益山, 마한·백제연구의 새로운 중심』, 국립전주박물관·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문형, 2012, 「전북지방 백제 황혈식석실분의 수용과 전개-서부지역의 군산·익산·완주·전주를 중심으로」 『백제고분의 새로운 인식』, 호서·호남고고학회
- 朝鮮古蹟研究會, 1938, 「昭和十二年度古蹟調査報告書」
-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 주경미, 2003,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 최완규, 2003, 「익산 쌍릉의 재검토」 『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익산시
- 최완규, 2001, 「익산지역의 百濟古墳과 武王陵」 『馬韓·百濟文化』 第15집,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 洪思俊, 1966, 「扶餘 陵山里 一古墳 調査(史蹟 第25號)」 『考古美術』 第七卷第三號



The Burial Type and Wooden Coffin of Iksan(益山) Ssangneung(雙陵)

Kim Nak-j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d the burial type, wooden coffin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of Iksan Ssangneung, the royal tombs of Baekje. Ssangneung was found to be the royal tombs of King Mu(武王) and queen through the burial type, wooden coffin, articles such as chinese jade ornaments and the deep relationship between King Mu and Iksan region.

The reason of constructing Baekje royal tombs in Iksan region can be examined at many aspects. First, Iksan was a very important place for King Mu. Because Iksan was the basis of his political growth. Also, Iksan was a important geopolitical location in relation with Silla(新羅). For this reason, Iksan was developed in earnest. The construction of major facilities such as royal palace and temples in Iksan suggest the transfer of the capital from Sabi(泗水) or the preparation and partial execution at least. Howev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was not completed. It can be seen as the incomplete city.

However, even after King Mu Iksan was maintained as the important region by King Euja(義慈王). It can be seen through the maintenance of great temples such as Jeseoksa(帝釋寺) and Mireuksa(彌勒寺) built at later period of King Mu and royal palace area, even though royal palace had turned into the temple. These inherited consciousness may have been embodied in the act of building royal tombs of King Mu and queen.

Key Words Baekje(百濟), Iksan(益山), Ssangneung(雙陵), Burial Type(墓制), Wooden Coffin(木棺), King Mu(武王)